

## 이상, 랄로, 엘만, 후베르만

에두아르도 랄로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스페인교향곡 작품1〉

랄로의 이 곡은 정경화, 이차크 펄만 등의 연주로도 들을 수 있다. 이들의 연주를 엘만과 비교하면 30년대 식민지 작가의 한모퉁이를 발견할 수 있다.



총독부 기수 시절의 이상(김소동씨 소장).

“오늘은 음력 선달 그믐날이요. 향수가 대두하오. O라는 내지인 대학생과 커피를 먹고 온 길이요. 커피집에서 랄로를 한 곡조 듣고 왔소. 후베르만이란 제금가는 참 너무나 탐미주의입니다. 그저 한없이 예쁘다뿐이지 정서가 없소. 거기 비하면 요전 엘만은 참 놀라운 인물입니다. 같은 랄로 더욱이 최종악장 론도의 부를 그저 막 헐어내서는 완전히 딴 것을 만들어 버립니다.”  
— 음력 제야, 이상

1937년 2월 10일, 이상은 이런 편지를 김기림에게 보냈다. 5개국어를 배우겠다고 호언장담하며 찾아간 도쿄에서 이상이 처음으로 한 말은 ‘실망이요’였다. 실망한 이상에게 바로 엘만의 바이올린 연주가 위안이 됐다. 카알 홀레슈가 “감각적인 매끄러움이 넘치며 동양적인 걸음을 걸친 이탈리아풍의 벨칸토, 중소리처럼 투명한 그 인토네이션은 그의 음색의 매력을 한층 더 드높인다”고 표현한 엘만톤을 이상은 ‘슬라브적인 굽은 선’과 ‘그 분방한 변형’으로 이해했다. 이상은 원래 엘만을 싫어했는데, 실연을 듣고서야 이해할 수 있었다고 덧붙인다.

미사 엘만과 브로니스와브 후베르만은 페테르부르크의 바이올린 선생 레오폴트 아우어의 직방계 제자다. 하지만 엘만이 러시아악파에 속했다면 폴란드 출신의 후베르만은 11세 이후 어떤 악파에도 속하지 않았다. 엘만은 인사이더였고 후베르만은 아웃사이더였다.

이상이 커피집에서 들은 후베르만 연주의 랄로곡은 ‘스페인교향곡’이다. 이 곡은 29년에서 35년 사이 녹음된 곡을 모아 영국 콜롬비아에서 복각한 ‘후베르만 바이올린 명연집’ 제2집에 수록됐다. 사라사테를 위해 작곡한 랄로의 ‘스페인교향곡’은 이국적 감정과 대담한 악상, 원색에 가까운 화려한 색채감이 인상적이다. 어린 시절부터 솔로리스트의 길을 걸으며 작곡가의 의도를 반드시 지켜야한다고 고집한 후베르만은 엄격한 곡해석을 보여줬고 이상은 이를 일러 그저 예쁘다고만 했다.

한편 이상은 그로부터 20여일 전인 1월 21일부터 닷새간 도쿄 히비야홀에서 열린 연주회에 가 엘만이 연주하는 ‘스페인교향곡’을 들은 바 있다. 관련 기사를 쓴 《The Japan Advertiser》는 엘만의 이 연주를 “놀라운 음조, 풍부함, 따뜻함, 설렘으로 여지없이 청중을 사로잡았다”고 평했다. 엘만톤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얘기도. 1904년 베를린에서 데뷔한 이래, 48년까지 엘만의 레코드는 2백만장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였다. 엘만톤은 당시 대중들이 어떤 감성을 선호했는지 잘

보여주는 음색이다. 그 대중에는 식민지 조선의 작가들도 들어간다. “그래도, 그는 그곳에서 엘만의 ‘발스·센티멘탈’을 가장 마음 고요히 들을 수 있었다”(《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박태원)는 문장에서 보듯 30년대 경성의 커피숍에서 엘만의 연주를 듣기란 어렵지 않았다.

아마 다방 ‘제비’의 포터블축음기에서도 엘만의 연주는 흘러나왔을 것이다. 하지만 경성에서도 들었을 엘만이 왜 갑자기 좋아진 것일까? 엘만과 후베르만은 비브라토에서 갈린다. 이 미세한 기교 때문에 카알 홀레슈는 엘만을 높이 평가하고 후베르만을 격렬하게 비판했다. 이상 역시 수사학적 차원에서 엘만과 후베르만을 구별했다. 원작을 얼마만큼 변형하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커피집에서 일본 대학생과 랄로를 들으며 클래식이나 문학을 얘기했을 이상은 그로부터 1주일 뒤, 니시간다경찰서에 체포된다. 그리고 풀려나 병상을 지키다 그 해 4월 17일, 운명한다. 어쩌면 랄로의 ‘스페인교향곡’은 이상의 삶에서 마지막으로 들은 곡인지 모른다.

이제 랄로의 이 곡은 정경화, 이차크 펄만 등의 연주로도 들을 수 있다. 이들의 연주를 엘만의 연주와 비교하면(물론 구하기 쉽지는 않다) 30년대 식민지 작가의 한 모퉁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모퉁이는 유성기에서 흘러나오는 모노톤의 바이올린 소리처럼 한없이 정감어리다.

— 김연수 기자



이상은 경성에서도 즐겨 들었을 엘만을 도쿄에 가서야 좋아하게 됐다.